

인도그림기행 39

그림·글 이호신

새날 위해 어둠에 가리워진 히말리아



네팔 나가여니강(93×64cm).

흐르는 것이 어찌 강물뿐이라 (나가여니강과 포카라 호수에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룸비니를 떠나 이제 히말리아로 떠나겠습니다.”
오! 히말리아. 가이드 라젠스의 한국 발음에 꽤 익숙해진 일행은 모두들 설렘속에 일렁이는 눈빛이 역력하다. 네팔의 수미산(須彌山), 히말리아의 아나푸르나. 그 산빛이 어느새 그리움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삼기된 여정은 아침 일찍 마지막으로 스투파 하나를 더 찾은 다음 떠나기로 했다.
마야 부인의 친정인 폴리야족이 살았던 곳에 건립되었다는 라마그

라마(Ramagrama) 스투파. 짙은 안개와 싸늘한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데 둘러보니 그새 어디서 들려왔는지 아이들의 농담들이 울광줄망하다. 무엇보다 라마그라마는 붓다 입멸 후 사리가 분배된 8개국중 한 곳에 세워진,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스투파로 지목되고 있다.
정비되지 않은 스투파의 이미지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두 거목의 뿌리가 스투파를 파고든 것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또 나무에 걸려진 만국기는 룸비니동산의 추억으로 새록한데 스투파 주변을 도는 순례객의 정경이 살아 숨쉬는 그림이다.
이제부터는 종일 차를 타고 해질녘까지 포카라(Pokhara)에 당도하는 여정인데 군데군데 쉬면서 지나온 순례의 의미와 성과를 각자 돌이켜 볼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나그네는 여전히 새로운 만남에 눈길과 느낌이 살아오른다. 거리의 풍경 중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단연 영화 포스터인데 마치 거대한 대자보 같다. 가난한 마을에까지 벽보를 대신하는 컬러 포스터는 하나같이 전쟁과 사랑의

포카라행 길목에 마주친 나가여니강 금싸라기 모래와 청록빛으로 눈부서 호수에 비친 산, 한쪽의 수목화 연상

메시지여서 사내 주인공은 웅장스럽고, 여배우는 비련의 여인상으로 물론 배어있다.
깊은 산길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달려나가는데 히말리아 포카라행 길목의 나가여니강이다. 강은 산을 가르지 않고 산의 성정을 도와주는 젓줄이다. 아니 산이 흘린 눈물을 모두 받아주고 대지를 적시는 어머니의 품이다.
유유히 그 강을 따라 나그네도 흐른다. 안개 걸린 청명한 오전,

산길은 쏟아지는 숲 사이의 햇살로 투명하다 못해 눈부시다. 산과 다랑이 밭 아래로 예뻐 가는 청록빛 강물은 햇살의 파장으로 때 아닌 은하수가 되어 출렁인다.
그 순간 불현듯 한국의 동강(東江)이 떠올랐다. 수년간 발품을 팔며 동강을 걷고 걸던 일. 그 곁을이 '동강 12경과 전도(全圖)'로까지 이어졌던 일이 전생의 일처럼 스쳐간다. 누가 그랬다. 기억의 모두는 전생이요. 자각하는 현실까지가 역사라고.
“아무리 일정이 빠듯해도 그렇지, 저 강물을 두고 어찌 그냥 지나친단 말입니까.” 나의 다그치는 호소에 “예, 그렇지 않아도 강변 어디쯤에서 도시락을 풀 예정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내 부족한 인내는 마침내 일행들이 따사로운 햇살아래 강을 바라보며 따끈한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푸는 새 서둘러 강변으로 달려갔다.
백사장의 모래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온갖 보석이 부서져 강가에 지천으로 깔린 듯, 손가락사이로 빠져 흐르는 감촉과 빛깔은 무엇으로도 형용키 어려운 체험의 극치로 잠겨왔다.
나는 어느새 한줌의 모래를 검은 필름통에 담고 있었고 전생의 기억처럼 한국에 와 붓을 든 오늘, 그 통을 열어 추억의 무늬가 박힌 보석을 새삼스레 바라보고 있음에라.
나는 그 날 아이가 되어 마음속으로 불렀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마치 추억처럼 물러든 아이들은 하나같이 내 어린 유년의 벗들. 그 얼굴을 꼭 빼닮았고, 황토벽에 초가지붕을 한 집은 흡사 예전의 한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다.
차는 갈 수록 솟아오르고 산길이 깊어지자 강물은 어느새 숨어버린다. 휴식을 위해 소담한 마을에 내려 둘러보니 이곳에서도 몽골리아의 생태는 끈끈한 이웃의 모습으로 모두 정답다. 낯설어 하지 않음은 그들도 마찬가지. 이마의 붉은 점과 현란한 옷을 빼고는 우리 산골의 얼굴과 그야말로 닮은 꼴이다.
손녀를 품에 안고 머리 손질을 하는 할머니. 아궁이에 걸려진 무쇠솥. 등근재에 찻가루를 손으로 이기는 아나. 다만 물동이 대신 이마에 두른 지게끈으로 짐을 지고 가는 여인들이 낯선 풍경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옛 지방같은 곳에서 간식을 사던 일행들이 사진 찍기에 열중하니 젊은 여인이 아주 부끄러운 얼굴로 일행을 응시하고 있다.
멀드기프 마을의 원더나(20세)는 마치 우리 누이동생처럼 친근한 얼굴인데 해맑고 수줍은 미소였다. 우수 어린 눈빛에 반해 일행들이 포즈를 취하는데 의외로 여성이다. 나 역시 궁금하여 풍역을 청하니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아직 없는 신혼 여성이었다.
예정대로 차는 큰 차질없이 땅거미가 짙어지는 시간 포카라에 당도했다. 어둠이 깔리는 포카라 호수는 흘러내린 강물의 원천수처럼 넓고 검푸르게 대지를 물들이는데 집시 마냥 작은 현악기를 튕겨대는 행상들이 달려든다. 한편 어둠속 호수는 근경의 산빛이 걸쭉 수목화가 되어 가를거리고 작은 배들의 파랗불은 길손의 방향끼를 더욱 고조시킨다.
마침내 돌아보는 하늘 아래엔 어둠에 휩싸인 히말리아. 어찌면 히말리아의 새날을 열기 위해 오늘 하루의 커튼이 지금 막 내려졌을 것이라 생각으로 안도하고 내일을 희망한다.
적막한 호수를 바라보며 떠올리는 시간, 나가여니강을 거슬러온 여정이 어찌 강물의 시간뿐이라. 그 동안 순례의 지남(指南)속에 이 끌린 감동과 감회. 그 사연의 열개들이 강물에 풀려듯 내 영혼속으로 흐르고 있음...

hsl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윤년 한강 水上法堂 방생도량 3000배 관음정진 방생대법회

수도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민족의 젓줄 한강 수상법당에서 나라번영과 불자님의 원력성취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도서울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민족의 젓줄 한강의 유일한 수상법당 방생도량에서 윤년 감신년을 맞아 업장소멸 소원성취기원 3000배 정진 방생 대법회를 전국의 인연불자님이 대거 동참하시는 가운데 기도정진소임 의전스님단의 지극정성 기도와 나라번영과 불자님을 위한 축원으로 장엄하게 봉행됩니다. 아울러 발원불자님의 인연연가와 유주우주 고희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는 천도법회와 방생 기도를 함께 봉행합니다. 전국의 인연불자님께서도 수희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南無 관세음보살 마하살

※ 기도입재 : 2004년 3월 25일(목) 오후5시 ※ 장소 : 한강 방생도량 법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한강시민공원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사이 소재
 ※ 교통편 : 1. 잠실출발 : 잠실 호텔롯데월드 옥외주차장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출발 법회인도차량 대기, 무상운행
 잠실역에서 롯데월드 방면으로 나와 롯데쇼핑센터 끝나는 지점까지 곧바로 오시면 인도하여 드립니다.
 2. 개별동참 : 88올림픽대로 잠실방향으로 진행하여 천호대교 지나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 사이 우측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 **잠실출발정소**
 ※ 매주정진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11시 (입재후 2004년 11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기도법회 33회 봉행발원)

- 공양 : 청정자연식으로 저녁공양 본사에서 준비합니다.
- 법회 동참금은 불자님 스스로의 정성으로 합니다.
- 불자님의 신심증장을 위하여 차량과 공양등을 본사에서 감당합니다.
-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께 108염주 · 단주 · 범요집 · 불교경전등을 무상법보시합니다.
- 수행생자녀 합격성취 기원 하시는 불자님을 위하여 수행생, 학업자가 뚝에 지나는 지혜제일 문수보살상 목걸이를 보시하여드립니다.
- 금번 3000배 정진과 방생기도는 수행생과 학업자를 위한 축원, 권강성취 축원등으로 동참하시는 예가 많습니다.
- 대법회의 원만한 봉행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가능한 사전에 전화문의 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행·문의 :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 3446-2158, 2185/3443-9871~7/511-6210~5

※ 법회후 귀가 교통편의 제공 : 오후11시 기도 마친후 각방면 차량을 통하여 불자님의 거주지역 가까운 거리까지 차량운행할 예정입니다.